

⊕ 공지사항



구역장 회의

- 일시: 4월 26일(주일) 오후 12시 30분

2015 중고등부 주일학교 체육대회

- 일시: 4월 19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Newington Reserve

단체모임

- 4월 5일(주일) 요센회 / 대건회 / 양업회 / 홀리패밀리
- 4월 11일(토) 해외선교 후원회
- 4월 12일(주일) 쌍투스성가대/ 전례해설단 및 독서단 / 연령회 / 울뜨레아 / ME 조장
- 4월 18일(토) 자모회 / 한화회
- 4월 19일(주일) 요한회 / 인나회 / 글로리아 성가대

경로잔치

- 일시: 5월 9일(토) 오전 10시 - 오후 3시까지  
- 협찬점수: 4월 12일(주일) - 5월 3일(주일) 까지

주일 전례 및 구역 봉사 안내

- 독서: 9시 미사 - 전례부, 10시 30분 미사 - 구역
- 봉헌: 10시 30분 미사 - 구역
- 주보봉사: 9시, 10시 30분 미사 - 구역



전례성사 안내

- 일시: 5월 17일(주일) 오후 2시
- 교리시간
- 성인: 4월 12일 - 5월 10일 매주(주일) 오후 12시 30분 - 3시
- 중고등부: 4월 11일 - 5월 9일 매주(토) 오후 3시 - 5시
- 시티공동체: 4월 12일 - 5월 10일 매주(주일) 오후 3시(시티)

사목회의

- 4월 12일(주일) 오후 12시 30분 임시 사목회
- 4월 19일(주일) 오후 12시 30분

주일 ■ 05, 12/4월 03 구역 ■ 19, 26/4월 06 구역 ■ 3, 10/5월 05 구역 ■ 17, 24/5월 07 구역

봉사 ■ 전례, 커피, 청소 9:00 am, 10:30 am

오늘의 중식 메뉴  
신자 나눔 (다과, 떡)

봉헌금	교무금	감사헌금	기타	지출	누적잔액	미사 참례수
\$ 4,062.75	\$ 20,429.55	\$ 582	\$ 300	\$ 14,032.94	\$ 95,931.38	2,097명

주소 26 Cam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홈페이지 www.sydneykcc.org 이메일 info@sydneykcc.org 전화번호 8756 3333 (대표번호), 8756 3334 팩스번호 8756 3335 사재관 8756 3330 (임요셉 신부), 8756 3332 (노미카엘 신부), 8756 3331 (이 스테파노 신부), 9558 3498 (홍 아고보 신부) 수녀원 8756 3336 (최 인노첸시아 원장수녀, 최 디아나 수녀, 윤 비오로 수녀) 연립회 0433 067 456 (김민심 아람)

# 시드니 가톨릭 주보 한 인

주임신부: 임기선 요센  
보좌신부: 노홍영 마카렐, 이남용 스테파노  
교해신부: 홍 아고보  
수녀: 최순신 인노첸시아, 최연숙 디아나, 윤경남 비오로  
사목회장: 최병훈 요센

한국 순교자와 성 스타니슬라오 성당 Korean Martyrs & St Stanislaus Catholic Church 주소 26 Cam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전화번호 02 8756 3333

## ⊕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소공동체와 레지오가 활발한 공동체**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선교로 나가는 공동체를 건설 합시다

*I believe in the sun even when it is not shining.  
I believe in love where feeling is not.*



*I believe in God even if He is silent.*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희망이시다. 주일에는 낯선 분들이 함께 공소예절을 하고 식사를 나누며 오랫동안 아버지와 교리 공부를 하던 모습이 일상이었고, 공소예절 후의 특별한 간식과 칭찬 때문에 성미지루를 들고 아랫마을과 웃마음을 매 주 쉬지 않고 도는 것은 내 몫이었다.

십여 년 전 교리 교사로 부름을 받고, 말재주 없고 수줍음 많은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망설임과 불안감이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워 쓰신다는 말씀에 용기를 얻어 지금까지 소명이라 생각하고 봉사하고 있다. 세례식 때마다 느끼는 보람은 농부가 풍성한 가을 들녘을 보는 것 같이 뿌듯하다. 봉사자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정성을 바치며 산다는 것은 인생의 참 행복과 가치를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일이라는 신부님의 말씀처럼 나의 존재가 누군가의 삶에 은총이 되고 구원을 선물할 수 있다면 예비 신자들을 위한 봉사는 나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요즘 예비자들과는 ‘소공동체와 함께하는 여정’이란 길잡이로 하느님을 일컫는 예비기간을 보내고 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가 힘들지만 몇 주가 지나면 진실한 이야기 속에 함께 울고 웃으며 형제 자매가 되어 하느님 나라로 달려가는 모습들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같이 가슴이 뭉클해지며 평한 느낌이 들곤 한다.

지난 2월에는 세인트 매리(St. Mary)주교좌 성당에서 75명의 예비자가 선발예식을 통해 예비신자로 받아들이는 예식을 가졌고, 3월에는 50여명의 새로운 예비자들이 인교식을 했다. 4월에는 40여명의 새 영세자가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다. 이는 우리 공동체의 축복이며 하느님의 사랑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 ⊕ 전례성가 / 화답송

전례성가: 임당: 130 봉헌: 132, 131, 135, 137 성체: 136, 128, 138, 129 파견: 134  
제 1독서 사도 10, 34-37-43 제 2독서 콜로 3, 1-4 복음 요한 20, 1-9



이 날 은 주 님 이 마 련 하 신 날 이 날 을 기 뻐 하 며 즐 거 워 하 세

영성체송: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었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교리봉사회 김복임 마리아

